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제임스 베이커(James Baker)라는 인물을 초기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제임스 베이커는 누구인가. 부통령 조지 부시의 죽마고우로서 당시 부시후보를 도와 레이건을 괴롭힌 유능한 선거참모였다. 말하자면 적진(敵陣)의 장군을 최측근으로 기용한 것이다. 그것을 보고 미국의 언론들은 ‘레이건이 켈리포니아 건달인줄 알았는데 사람볼 줄 아는구나’라는 논평을 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은 왜 인재를 구하지도 않고, 포용성도 없을까하는 안타까움 때문이다.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한다고 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쫓개만 섬기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국민은 지난 10년간 진보를 내세운 실익은 정책에 염증을 느꼈다. ‘잃어버린 10년’이라고도 말했다. 그런 차에 경제를 살리고, 청년실업을 해결하겠다고 나타난 후보에게 531만 표차로 표를 몰아주었다.

국민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많은 기대를 했다. ‘청계천의 기적’을 기대했고, 버스전용차로제 같은 ‘신선한 충격’을 꿈꾸었다.

그런데 대통령 취임 100일이 되는 요즘 국민은 화가 나있다. 성난 민심은 촛불로 광화문에서 청계천에 이르는 도로를 점거한 채 ‘민심의 쓰나미’를 몰아 ‘광우병 지진’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국민은 심정적으로 배알이 틀려있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고 했던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보면서 의아해 했다.



불자 세상보기

황진수
한성대 교수

민심을 읽는 마음

장관직 임명을 끝낸 후 ‘돈이 많다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대변인의 말에 국민은 우리들의 아픈 가슴을 헤아릴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졌다. 박근혜도 꺼안지 못하는 오만과 독선에 국민은 실망했고, 지지의 열정은 식어갔다.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 데이비드에 초대되어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물론 건국 이래 최초의 별장 회담이었다. 그러나 우리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큰 업적을 염두에 두고 미국산 쇠고기 건에 관하여 미국 측의 의견에 동의해 버렸다.

30개월 이상의 소가 과학적으로 광우병과 관

련이 있는지 없는지 국민들은 잘 모른다. 학자들의 표현대로 수 억분의 일이거나, 미국인들도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를 먹는다는 말로 국민들을 설득시키지 못했다. 또 대운하 사업을 공개적으로 노출시키지도 않고 마치 ‘숨겨놓은 연인’처럼 비밀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것도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문제는 100일 동안에 일어난 국민의 배신감 비슷한 감정의 폭발이다. ‘고소영’ ‘강부자’ 내각이면 어떠한가. 국가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면 된다. 그런데 서민들은 이명박 정권을 돈 있고, 유식한 ‘그들만의 정권’으로 간주하고

있다. 대통령 취임직후 68.3% 지지율이 19~20%로 떨어졌다. 원래 대통령에게는 18%의 고정지지율이 있다. 이 통계는 노무현 때도 그랬고, 심지어 전두환 때도 그랬다. 그러니까 18%선을 약간 넘어선 지지선은 열성적인 지지층 이외 국민 지지는 없다는 평가가 가능해진다.

처음에 중·고등학교가 시작한 ‘10대들의 반란’이 이제는 제중, 세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실망을 하고 있다. 처음에 많은 국민들은 좌파들의 선동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을 찍은 보수계층도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야당인 통합민주당의 팔뚝맨인 채신이다. 노무현 정권 때 여당이었던 그들이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할 듯하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반대로 돌아선 것이다. 자유무역협정이 비준되면 한나라당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걸 정치가 아니라, 그야말로 정상배 수준이다.

현재 한국의 국내외 정치, 경제 상황은 알아안 보인다. 약제가 한들이 아니다. 마치 안개 속에서 헤매는 것 같다. 목표도 없고 전략도 안 보이고 전술은 헛발질 한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과 야당지도자들은 불교의 중도사상을 익혀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열어놓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직시하며, 고통 받는 서민들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그 대안을 제시하는 자세로 나가야 할 것이다.

적의 장군이라도 유능하면 등용시켜야 한다. 그것이 민심이다.

왜 당신 마음대로

이씨는 30대 중반에 힘들게 결혼했다. 처갓집에서 이씨가 가진 것 없다고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두 사람은 진심으로 사랑했고, 반대를 극복하고 결혼을 이루기까지 아내와 이씨는 무진 애를 썼었다. 꿈같은 신혼생활이 시작되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이씨에게 아내가 “당신에게 보여 줄 것이 있어요”하며 상자 하나를 내밀었다.

“이게 뭐데?” “열어보면 알아요” 하면서 아내는 “큰 맘 먹고 샀어요. 당신 거예요. 다음 주에 아버지님 생신에 가는데”하며 미소를 지었다.

이씨는 궁금하게 생각하며 포장을 풀었다. 남성 셔츠였다. 환한 색상에 고급스러워 보였다. 아내는 “그 색이나 디자인이 당신에게 딱 어울릴 것 같아요.” 하였다.

그 말을 듣자 이씨는 갑자기 거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뭐? 나한테 어울린다고? 당신이 어떻게 알아?” 이씨는 무시당한 것 같아 미친 듯이 화가 났다. 놀란 아내에게 꾸꾸어졌다.

“왜 나한테 물어보지 않은 거야! 내 옷이지 당신 옷이야? 왜 당신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야. 도대체! 나를 필로 보는 거야! 내 생각은 안중에도 없는 거야?” 하고는 에이, 하며 상자를 바닥에 내팽겨쳐 버렸다.

아내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세상에, 당신 어찌면 이럴 수가 있어요.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해서 사온 건데 내던져버리다니, 당신 생각해서 사온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씨는 ‘당신 생각해서’라는 말에 걸렸다. “정말 나를 생각했으면

“나를 그렇게 무시할줄 몰랐어!”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⑥7 내 옷 내가 고르기

내 의사를 물어보아야지. 당신 마음대로 사 놓고는 나를 생각했다고?”

아내는 너무 놀라서 질린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난 안 입어! 가서 환불해 와! 내 옷은 내가 산다고!” 이씨는 도무지 분노를 자제할 수 없었다. 부들부들 떨릴 지경이었다.

“나를 그렇게 무시할 줄 몰랐다고!”하고 소리 지르고는 밖으로 나와 버렸다.

나를 무시하지 마세요

밤거리를 정신없이 걸기 시작했다. 한 시간쯤 걸자 힘도 빠지고 마음도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았다. 공원 벤치에 앉아 생각하기 시작했다. 사랑 하는 아내에게 왜 그랬을까. 나를 생각해서 사온 건데,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의 분노는 없어지지 않았다. 이상한 일이었다. 왜 이렇게 화가 날까. 이씨

는 마음을 가라앉혀 보았다.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이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작은 아버지 집에서 살았다. 사촌 형이 셋 있었고 누나도 있었다. 이씨는 항상 형들의 옷을 물려받아 입고있고 대학교 전까지는 한 번도 자기의 옷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언제나 작은어머니가 하는 말은 “이게 너에게 어울릴 거다. 이번엔 이것을 입어라. 너를 생각해서 준다”였다. 그러나 체형이 자기와 다른 형들 옷은 너무 크거나 색이 바랬고 아무튼 제대로 어울린 적이 거의 없었다. 이씨는 어떤 옷이든 한번이라도 자기가 골라서 입고보고 싶었다. 아무리 잔 소이라도 상관없었다. 직접 내가 골라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적은 없었다. 일방적으로 물려주거나 사주는 옷을 입어야했다.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열등감과 억울한 속에서 내 옷을 고를 수 없다는 분노가 마음 깊이 자리 잡은 것이다.

자생증생을 다스려야 한다

그래서 아내가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사준 옷이지만 자기에게 묻지 않고 샀다는 사실에 그토록 화가 났던 것이다. 무시당한 느낌과 분노가 그 정도로 깊은 줄은 몰랐다. 정작 작은 어머니에게는 한 번도 화를 내지 못했다. 엉뚱하게 진심으로 나를 생각해 준 아내에게 화살을 돌리다니, 이씨는 너무 괴로워했다. 이씨는 밤중에 집에 들어갔다. 아내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아까는 당신이 꼭 작은 어머니처럼 생각되더라고.”

이씨가 놀란 일은 아내는 아내이지 작은 어머니가 아닌데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 하는 점이였다. 며칠 동안 내내 그 생각만 했다. 그러다 우리 속엔 자생증생들이 있는데 그 각각의 증생들은 자기가 알고 겪은 것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법어가 떠올랐다. 어릴 때 화가 난 증생의식은 해소되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었다. 표현을 할 수 없었을 뿐 분노는 그대로 쌓여있었던 것이다. 그러다 유사한 상황이 되자 그 증생이 나서서 견장을 수 없이 화를 폭발시킨 것이다.

“자생증생들은 잘 되고 잘못되고 선하고 악하고를 모릅니다. 자기가 아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의 내 마음이 그것을 다스려서 조복 받아야 합니다.”

법어를 마음에 새긴다. 이씨는 그러러면 자성의 힘을 길러야 될 것 같다고 하면서 부지런히 정진하고 있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불자의 눈

탈바꿈 하는 학술세미나

불교학술세미나가 열리는 곳에서는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참가자가 없다는 것이다. 학술회의란 성격에 비추어 ‘관객의 부재’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다. 또 눈에 띄는 것은 발표자들이 시간에 쫓긴다는 것이다. 심지어 진행자가 시간 종료를 알리고 발표자는 주섬주섬 발표를 마무리 하는 모습도 익숙한 풍경이다. 발표 후 토론이 항상 부실하다는 것도 늘 회자되는 세미나 풍토다. 일반 참가자들과 발표자의 진지하고 열띤 토론은 거의 기대하기 어렵고 지경 토론자의 토론 내용도 발표내용의 수정 보완 요구 차원으로 흐르는 게 관례처럼 되어버렸다.

꼭 찬 객석 앞에서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고 그에 대해 전공자와 비전공자가 함께 토론하는 학술세미나를 찾아보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다. 그런 가운데 밝은사람들이라는 학술단체가 불교학세미나의 진행 방식에 신선한 바람을 몰고 왔다는 소식이다. 이 단체는 학술연찬회를 앞두고 발표될 내용을 미리 책으로 묶어 서점에 배포했고 질의 사항도 미리 공개적으로 접수를 받는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행사의 진행도 입체적으로 기획해 누구나 즐겁게 참여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시도는 세미나를 주회하고 기획하는 사람으로서 바람직한 태도다. 타성에 젖은 준비와 기획이 재미없고 졸리는 세미나를 만든 ‘주범’이었기 때문이다. 밝은사람들의 세미나 분위기 전환을 위한 노력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두고 볼 일이지만 ‘변화’를 위한 노력의 값은 100점을 주기에 충분하다.

결계신고 참여율 66%의 의미

조계종이 올 하안거부터 시행하는 결계신고 동참율이 66%로 집계됐다. 총무원은 더 취합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미 신고 기간이 5월 29일로 끝났음을 감안하면 신고자가 더 늘어나는 것을 기대하긴 쉽지 않을 것 같다. 설령 더 늘어난다 해도 마감 뒤의 특려에 의한 타의적인 신고일 가능성이 많으므로 처음 시행하는 결계신고의 모양새만 그려질 것이다.

조계종은 수행하는 종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포살과 결계에 상당한 중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첫 번째 안거에서 나타난 66%라는 동참율은 상급하지 않다. ‘포살 및 결계에 관한 법’은 결계신고와 포살에 참여하지 않으면 수계(受戒)와 법계품서 등 각종 갈마에 권리제한을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율이 6할대로 났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총무원과 종도부 사이에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새로 만들어진 제도에 대해 구성원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혼란만 야기하고 조직의 기강과 의사소통 구조에 상처를 남기게 된다. 조계종의 ‘포살 및 결계에 관한 법’은 종단의 전통을 지키면서 급변하는 시대에 합리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선택한 제도다. 안살림과 바깥살림의 조화가 없이는 산중불교의 구태를 벗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번 결계 신고를 계기로 조계종 총무원은 보다 세심하게 종도들과 소통하는 길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무광암
- 법 명 : 덕 산
- 주 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2동 1058-7번지

상기사찰은 귀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1일

한국불교내외종 총무원장 법하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칠보사
- 법 명 : 경 보
- 속 명 : 김요식
- 주 소 :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 1동 93번지

상기사찰은 귀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1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사주팔자(四柱八字)를 읽어 낼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3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4 태어날 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6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7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9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책 자 안 내

-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4 팔계의 상정에 대한 설명
-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력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9 팔계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1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2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여 하는가?
- 3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의 토질로 변화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4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5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6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7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삼담론의 및 책자 신청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현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1-8413